기름값 내린다…정유사 유류세 인하분 즉각 반영

내달 1일부터 휘발유 ℓ당 83원·경유 58원 추가 인하 효과…당분간 내림세 유지할 듯

천정부지 치솟던 기름값이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하락세로 전환된 국제유가를 따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가 시행되고, 정유사들이 직영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윳값을 다음달 즉각 인하하기로 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주유소 기름값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일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정유사 직영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ℓ당 각각 83원, 58원씩 일제히 내려갈 전망이다.

정유 4사가 회원사로 있는 대한석유협회는 이날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초 급등한 국내 휘발유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내달 1일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83원, 경유는 5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다만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 구조상 정유공장 출하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주가량의 시차가 걸린다.

정유사들은 재고에 따른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직영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세금 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주유소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취지에 공감하고,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이 직영주유소 기름값을 즉각 인하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 역시 하락세는 나타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광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5.31원 내린 ℓ당 1971.30원을 기록했다. 전남지역도 같은 기간 1.35원 감소한 1990.36원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광주가 1889.49원으로 4.5원 내렸다. 다만 전남은 경윳값이 1906.98원으로 오히려 0.95원 올랐다.

하지만 이날 들어서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하락 폭을 더 키우면서 뚜렷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광주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64.26원으로 전날보다 2.35원이나 내렸고, 전남지역도 1.08원 내린 1984.10원을 기록했다. 경유는 광주가 1887.08원으로 0.73원 하락, 전남은 1903.56원으로 0.59원 떨어졌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유가를 따라 올해 1월 셋째 주부터 지난달 말까지 10주 연속 올랐으나 이후 미국 주도의 비축유 방출 등의 영향으로 하락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우하향하고 있어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국내 경유 가격은 하락세 또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66.76 (-26.34)
↓	코스닥	913.82 (-8.01)
↓	금리 (국고채 3년)	3.105 (-0.081)
↑	환율 (USD)	1236.20 (+3.10)

생활요금 자동납부 캐시백

광주은행 7월까지 이벤트

광주은행은 KJ카드로 생활요금을 자동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7월31일까지 캐시백 제공 행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응모 대상은 광주은행 KJ카드(신용·체크카드)로 생활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개인회원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2만4000원 상당 현금을 돌려준다.

행사 기간 중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납부하면 3000원씩 최대 6000원 캐시백 혜택이 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도 각각 6000원 돌려받을 수 있다.

학부모 부담금을 자동납부 신청해도 3000원씩 최대 6000원 캐시백이 제공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비행기 타고 국내 여행했어요

제주항공, 코로나 이후 광주~제주 이용객 76% 늘어…김포~여수노선 등 할인 행사

코로나19 확산 이후 항공 국내선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항공의 광주~제주 노선 이용객은 44만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25만명)보다 76% 증가했다.

2020년 같은 노선 이용객은 22만명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새롭게 생긴 여수~제주 노선 이용객은 2020년 9만명에서 지난해 16만명으로, 77.8% 뛰었다.

여수에 대한 관광 수요가 늘면서 2020년 새로 진입한 김포~여수 노선 탑승객은 11만명(2020년)에서 28만명(지난해)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김포~광주 노선 이용객도 3만명에서 10만명으로 1년 새 3배 넘게 급증했다.

제주항공 측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여행 수요 확대에 집중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제주항공은 2019년 6개(김포·부산·대구·광주·청주~제주, 김포~부산)의 국내 정기노선을 운항했지만, 이후 정기노선 4개를 늘려 총 10개의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달 말까지 탑승할 수 있는 김포~부산·광주·여수 노선 등 내륙노선과 군산·대구·부산~제주 등 지방공항 출발 제주행 노선에 대해 제주항공 모바일앱으로 구매하면 5% 즉시 할인을, 앱 메시지를 수신 동의하면 7% 할인을 제공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명인의 손맛 느껴보세요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푸드에비뉴에 문을 연 '명인 식품관'에서 직원이 대한민국 식품명인들이 만들어 낸 젓갈, 과일청, 식초, 장류, 장아찌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20년 이상 경력 대한민국 식품명인들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다양한 식품을 만날 수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에너지신산업 상용화 프로젝트 중기 공모

녹색에너지연, 시제품 제작·해외 진출 실증기술 개발 지원 등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남 에너지신산업 상용화 프로젝트 지원 대상기업을 공모한다.

상용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상용화 이전단계 기술을 대상으로 제품 성능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증기술 개발, 신기술 및 제품 인증지원, 해외시장 조사 등의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장이 전남 도내에 소재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5월 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업은 금년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www.jeonnam.go.kr)와 녹색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www.gei.re.kr) 알림마당 기업지원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남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전남도를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발돋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2018년부터 천일염 생산 병행 태양광 발전 상용화 프로젝트 등 9개 기업에 상용화 연구과제(R&D)를,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50개 기업의 시제품 개발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 도내 10개 기업에 과제당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고성능 제품 개발도 돕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상시 모집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1인당 훈련비 최대 1000만원 등 혜택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의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한 교육훈련 제도다.

학습기업이 청년 등을 우선 채용한 후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지원하고, 학습근로자는 현장훈련 외 학교 등에서 이론학습을 병행하는 훈련이다. 올해 2월까지 1만8000여개 학습기업과 11만9000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1인당 1000만원 내외의 현장훈련비용과 연간 1300만원 한도의 기업현장교사 수당, 연간 300만원의 HRD 담당자 수당 등 정부지원금과 병역특례, 조달청 가산점 등 부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인재 양성과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재교육을 통해 자원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허서혁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장은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직무 중심으로 인재를 자체 육성해 재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현장에서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지역 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쌀값 안정 위해 26만t 2차 시장격리하라"

농협 전남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2일 쌀값 및 수급안정을 위한 2021년산 쌀 26만t 2차 시장격리를 촉구했다.

전남농협과 광주·전남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협의회 조합장 20명은 이날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시장격리 촉구,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격리 방식 변경 등을 결의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전남농협 RPC 결산분석, 쌀 수급·가격 동향, 2021년산 쌀 1차 시장격리 현황, 2022년 쌀 적정생산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 통계청 산지쌀값조사 가격추정방법 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1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6.9㎏으로 30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재배면적 증가, 논 농업 기계화·재배기술 발달로 생산량 증가 등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80㎏)은 19만6840원으로 지난 2020년 10월 이후 18개월 만에 20만원대가 붕괴됐다.

추가 시장격리가 없으면 가격 하락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농협은 설명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현재 쌀 산업은 소비량 감소, 공급과잉으로 수급 불균형, 산지 쌀값 하락 등 유례없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2차 시장격리 조속 시행과 더불어 2022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 고향사랑기부제의 농축산물 답례품 선정 등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도전! K-스타트업' 일반리그 참가자 모집

중기부 내달 1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16일까지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2' 혁신창업 일반리그 부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회는 중기부와 11개 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이다.

부처별로 10개의 예선리그를 개최하며, 이번에는 혁신창업 일반리그 부문 참가자를 모집한다.

10개 예선리그 중 '혁신창업리그'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리그'와 창업클럽(창업동아리 및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리그'로 구분해 운영한다.

혁신창업 일반리그는 부처별 특화된 분야로 운영되는 9개 예선리그와 달리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7년이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운영된다.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비)창업자들은 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지역예선전을 치르고, 총 115개팀이 선발돼 종합예선전에 진출하게 된다. 종합예선전에서는 발표평가를 통해 본선으로 향할 최종 46개팀을 선발한다.

리그별 우수팀을 선발해 통합본선(210개팀), 왕중왕전(30개팀)을 거쳐 최종 수상자(20개팀)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과 총 상금 15억원이 주어진다.

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예선 통과팀, 통합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사업역량 강화와 기업홍보(IR 피칭) 역량강화 등 지속적인 멘토링 지원을 통해 참가팀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한 '혁신창업 클럽리그'는 지난 2월 선정한 창업중심대학이 6개 권역별 예선을 주관해 본선 진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오는 5월에 별도 모집을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